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아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Open Doors(등록번호 성북 라 00066) 부록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4-5)

아시아(Asia)

1일(수) 북한(North Korea)

앞으로 확대될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 협력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통일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 정권만 배 불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거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복음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북 교류 활성화가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그 통일이 복음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일(목) 북한(North Korea)

북핵 문제가 북한의 모든 부조리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 내의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으며,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북녘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일(금) 브루나이(Brunei)

브루나이 말레이족의 문화는 말레이시아 문화와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은 이슬람교 의식이 대부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조화와 순응을 중요시하는 브루나이 말레이족이 전통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종교 의식을 통해 국민들을 철저

히 통제합니다. 매주 브루나이의 모든 모스크에서는 종교국에서 배포한 동일한 설교가 선포되고, 금요기도회에 빠지거나 이슬람 규율을 어기는 남자들은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이슬람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에 가혹한 정책이 풀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7월호와 동일)

4일(토) 부탄(Bhutan)

1990년 이후 부탄 내 기독교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 되었습니다. 부탄 내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불교도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은 이 땅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더욱이 부탄의 기독교인들을 양육할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일(일) 중국(China)

중국 당 중앙위가 국가주석 2연임 임기조항을 삭제함으로, 시진핑 집권이 15년이상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 3 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강한 통제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기독교 탄압에 교회 지도자들이 순결과 지혜로 잘 리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일(월) 파키스탄(Pakistan)

아시아 비비(Asia Bibi)는 한 무슬림 여성과 종교적 언쟁을 벌이다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되어 교수형 선고를 받고 9년 께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안전을 지켜줄 폐쇄된 마을에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이 벽돌을 굽는 가마에 제약된 노동자나, 거리 청소부 혹은 오물 처리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들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도록 기도해 주세요.

7일(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무장 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에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만 5천명(0.05%)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일(수) 라오스(Laos)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종족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몽족, 브

루족 기독교인들이 공권력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가재도구 파손, 가축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방화로 집이 전소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 소수민족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로 생존자체가 어려워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소수종족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목) 방글라데시(Bangladesh)

군부와 이슬람주의자 세력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갑니다. 이슬람 극우파에 의한 기독교인과 기독교관련 건물에 대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힌두교 배경의 그리스도인은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가난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일(금) 인도(India)

기독교인은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사소한 이유로 승진이 거부됩니다. 카스트 상류 계급이 90% 이상의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정치적-종교적 집단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과 교회 활동가들 대부분에게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가 핍박이 거세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iddle East)

11일(토) 시리아(Syria)

250,000만 명이 이상이 죽었고, 1/3의 아이들만이 학교를 다니며,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50% 이상의 의료시설은 파괴 되었고, 냇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은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살수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UN과 세계열강들이 함께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일(일) 레바논(Lebanon)

레바논 역사는 지난 70년간 내전, 외국(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간섭, 인질 납치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주 근로자에 대한 학대와 구타 임금 미지급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야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감소하고 국내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안정화와 소수 그룹으로 폭력에 취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3일(월)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고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샤리아법에 의해 통치하는 종교 국가입니다. 정부는 개종과 신성모독을 이유로 기독교인을 대형에 처하고 구금하는 등, 종교 박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인구 중 4.4%(140만 명)가 그리스도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WCD). 100년 전 약 50여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계속된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 이슬람 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이 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화) 예멘(Yemen)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예멘은 무슬람이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나라로 이곳 국민들은 거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고 직장이나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하며, 어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멘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수천 명의 예멘 성도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 실재임을 믿고 굳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5일(수)이란(Iran)

이란 정부는 이슬람 정부이고 국가는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반하는 모든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국 내 교회는 물론이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구호단체나 NGO 기관에 대해 국가를 전복하려는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란 지도부가 경제, 정치, 외교 면에서 국민들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 젊은이들과 여성들 중심으로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젊은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개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란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16일(목)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세계에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받는 나라 중 하나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실례로 토하르(35)는 기독교로 개종해 10년형을 받고, 6년 10개월 복역 후, 가석방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 조건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믿음의 이유로 고립되고 사회에서 배제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7일(금) 카자흐스탄(Kazakhstan)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도 흔하고, 헤로인은 알코올만큼 손에 넣기 쉽습니다. 가정 붕괴와 만연된 부패가 많은 사람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격 이슬람의 성장은 기독교인에 대한 납치, 폭행, 테러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납치 소식이 빈번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8일(토) 타지키스탄(Tajikistan)

국민 대부분이(98% 무슬림) 가난에 허덕이고 마약거래상은 번영을 누립니다. 해외 원조에 의존도가 높고 실업률이 높아 850만명의 인구 중 100만명 이상의 남성이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 감소와 교회 지도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른 한 목회자는 종교혐오유발 죄목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일(일)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단의 활동, 심지어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은 추방당했고, 몇몇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고 매맞는 수모를 겪었으며 심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등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굳건히 서며, 이 나라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20일(월) 나이지리아(Nigeria)

나이지리아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순전한 대학살’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약 6,000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풀라니 무슬림들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무감각한 피흘림을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지원을 정부와 유엔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주의 자녀들을 선하신 주의 손으로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21일(화) 에리트레아(Eritrea)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이 흔합니다. 교회 금지법에 따라 복음주의 핵심 지도자들은 수감되었고, 뒤이어 목회자, 사회 곳곳에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자, 최근에는 평신도까지 체포하고 있습니다. 구타와 끔찍한 고문으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절름발이가 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만 3,000명 넘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이 강건하게 은혜 안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2일(수) 소말리아(Somalia)

소말리아 성도들은 1991년 이후부터 지하에 숨거나 무정부 상태를 피해 해

외로 나갔습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신자가 약 수백 명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수많은 신자가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모이지만 나머지는 고립된 상황에서 혼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이 아주 힘겨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3일(목) 우간다(Uganda)

우간다인은 대부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유물론적인 태도, 일부다처제 관습,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인은 단지 무슬림이 아니라는 뜻일 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혼합주의적 관습과 잘못된 가르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어로 된 성경적인 기독교 문서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제자로 변화되는 갱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24일(금) 수단(Sudan)

수단에서는 정부가 교회나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 등을 몰수하여 건물과 토지를 민간 사업가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수단에는 가축과 초지를 둘러싼 종족간 유혈분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종족간의 대립은 소수민족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중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 박해와, 종족간 유혈분쟁이 은혜 중에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5일(토) 이집트(Egypt)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을 더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를 희롱하고 차별하며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기독교인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북부에 있는 기독교인은 더욱 심한 압력을 직면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안보 담당자들의 암묵적인 허용 아래 불법 이슬람 단체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표시된 주민증 때문에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압제자와 잔혹한 경찰들 앞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6일(일) 콩고민주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콩고에서는 오랜 기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집계 결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 300만여 명으로 작년의 배로 늘었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도 770만 명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집을 잃은 난민도 450만여 명에 달해 2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7~2003년 내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의 종식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7일(월) 지부티(Djibouti)

극소수의 소말리족과 아파르족 기독교인들은 가족에게 소외 당하고 친척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들을 배척하고, 때리며 심지어 이슬람을 버렸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자리가 없고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소외가 심각합니다. *교육, 공중보건, 문서, 성경 번역, 문맹 퇴치 사역, 청년 사역을 통해 지부티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8일(화) 말리(Mali)

말리 박해의 주요인인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5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지원 덕분에 무슬림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마코에만 쿠란 학교가 3,000개가 넘으며, 개인 이슬람 교사가 어린이의 40%에게 쿠란을 가르칩니다. *말리 무슬림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읽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수) 리비아(Libya)

기독교 공동체 안에 몰래 잠입해서 정보를 빼내려는 자가 많아서 성도들이 깊이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를 금지하는 구역이 많아서, 그곳에 접근하면 모든 관계자가 매우 위험해집니다. 국가에서 계속 감시하고,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무척 심해서 신앙 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리비아 기독교인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30일(목) 니제르(Niger)

많은 신자가 고립되어 있고 문맹인이 많아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인간개발지수가 최하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니제르를 변화시키려면 우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능력이 없어 많은 어린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제르 교회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받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1일(화) 한국오피도어선교회

오피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피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